

더 청렴한 전북교육 조성 총력

도교육청, '전북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사·용역·물품 입찰·계약 체결 전 원가 심사... 3월 1일부터 시행

전북도교육청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계약심사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교육행정기관은 시행 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시도 교육청은 대구·경기·충남 3곳에 불과하며, 전북교육청은 이번 제정안 마련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

의 물품 계약 등이 해당된다.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및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계약심사 사업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심사부서(감사관)는 원가 분석에 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원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감사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약심사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 이를 바탕으로 사전적 감사활동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계약심사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칙 시행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사히 훈련 마치고 느림한 모습으로"

남천현 우수대 총장 학군사관후보생 격려

우석대학교 남천현 총장이 지난 12일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군사관학교를 방문해 동계 전투지휘자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했다. 이 대학 학군사관후보생 47명은 지난해 12월 28일 입소에 분대 전투와 사격, 독도법 등의 전술·전투기술 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9일 퇴소한다. 남천현 총장은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으로 한 사람의 나옴도 없이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느림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남천현 총장이 지난 12일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군사관학교를 방문해 동계 전투지휘자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했다.



전주대학교는 지난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 LINC 공동관에 본교 교원 창업기업인 ㈜코어텍(대표 정홍진)이 참가해 혁신 기술 기반의 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실시간 하중 모니터링 기술 '주목'

전주대 교원 창업기업 코어텍, 미국 CES 2024 참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 LINC 공동관에 본교 교원 창업기업인 ㈜코어텍(대표 정홍진)이 참가해 혁신 기술 기반의 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전시는 전주대와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4개 대학 연합으로 전북 LINC 공동관을 구성, CES 박람회의 스타트업 전용 전시장인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대학별 혁신 기술 기반 제품이 전시됐다. 이에 전주대에서는 LINC 3.0 사업단의 교원 창업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교원 창업기업인 ㈜코어텍이 전시에 참여해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파일

에 내선형 탄소섬유 센서를 접목해 실시간으로 하중 및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우수기술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전라북도 주관으로 개최된 CES 2024 참여대학 간담회에 참가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체험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고, 학생 중심의 기술 기반 글로벌 창업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주대 LINC 3.0 사업단 김삼진 단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산업과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우리 대학에서도 대학과 지자체,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중심으로 첨단 신산업 분야 기업 지원과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융합소재인력양성 전공실무실습 프로그램 진행

국립군산대학교 지역기반 융합소재인력양성사업단(물리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참여)은 사업단 참여 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5주간 전공실무실습 및 실험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와 현장에서의 실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전공실무실습 및 실험실 인턴십 프로그램은 2학기부터 동계 방학 기간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의 전공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공 기술과 관련한 참여학과의 교수 실습실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이번 2학기에는 9개 과정이 개설돼 23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동계 기간에는 7개 과정에 15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험 및 연구 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의 연구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실질적인 연구 경험을 쌓고 있다. 심종표 단장(화학공학과 교수)은 "학생들은 이러한 실무 경험을 통해 전공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는 산업계에서의 채용 경쟁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두텁게... 올해 교육복지전문인력 확대

도교육청, 직무연수 실시 저소득층 학생 많은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맞춤형 지원

2024년엔 교육복지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해 더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2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교육복지사 및 교육복지조정자를 대상으로 2024년 교육복지 전문인력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서는 △교육복지 대상학생별 감정코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정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북교육청 주요정책(기초학력, 대안교육, 고교학점제) 안내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학생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복지중점학교를 200개교로 확대하고, 군지역 교육지원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교육복지사 및 교육복지조정자를 대상으로 2024년 교육복지 전문인력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청에도 교육복지조정자 배치한다. 교육복지전문인력은 오는 9월 1일자로 배치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과정, 결과에서의 격차를 줄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직무연수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학생들의 학습, 문화, 정서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교육자치의 과제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새해 첫 '교육정책 콜로키움' 개최 외국인 유학생 가족 동반 거주 허용 관련 특례 발굴 제안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前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제1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지 '오늘'의 연구 성과를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장이다. 이번 콜로키움의 교육정책연구 '전북특별교육자치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가족 동반 거주 허용 관련 전례형 교육특례 발굴 등을 제안하며, '2023년 전라북도 기초학력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도 전북의 모든 학교급, 학년, 교과(국,영,수)에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률 감소와 전북교육청의 1~3단계 기초학력



지원 사업별 효과성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국외교육동향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접근성 증진'에서는 교육 약자의 장애요소와 특수교육의 난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반 조성 내용을 소개한다. 한편 제2회 콜로키움은 2월 7일 평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장애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다방면 지원

전북대, 호남권역 장애 대학생 대상 챗GPT 활용 특강 지난해엔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 열어... 학생 큰 호응

전북대학교 취업진로처(처장 황지옥)는 지난 10~11월간 호남권역 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챗GPT 활용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 등을 위해 챗GPT를 활용한 취업 관련 실습을 통해 호남권역 장애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최민규 지식컨텐츠연구소 대표가 강연자로 나와 학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챗GPT 활용법과 취업 준비를 위

한 챗GPT 활용 노하우를 전했다. 모든 특강은 장애 대학생들의 이동 불편을 감안해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장애 대학생에 대한 세심한 취업 지원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다. 5년간 호남권역 대학 총 31개교, 장애대학생 1,396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고용공단,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

단과 장애 대학생 지원 거점대학 10개교와 함께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설명회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열어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 채용설명회와 참여 기업 채용담당자 및 취업 전문가와 1대1 맞춤 상담, 장애대학생 맞춤형 온라인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 대상 기업의 채용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장은성 기자

예비 창업자-창업자 간 교류의 장 마련

전북대 창업지원단, '창업중심대학 창업 Business Renewal' 캠프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손정민)은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 Business Renewal'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 에이브호텔에서 지난 11일부터 열린 이번 캠프에는 (예비)창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강의가 마련됐다. 또한, 2024년 창업중심대학 사업 설명회와 유관 기관 사업 소개를 통해 최신 창업 트렌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는 등 전문 멘토링과 창업 교류, 협업을 진행했다. 손정민 단장은 "창업자들의 교류의 장인 이번 캠프를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을 고취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전북 권역 내 창업 인프라를 적극 활



용해 창업사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프는 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가 공동 주관했다. /장은성 기자